

등록번호	푸른도시과-7675
등록일자	2015.4.29.
결재일자	2015.4.30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자연생태팀장	푸른도시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	
환경원	김종철	양종수	04/30 이영균		
법 조					

**「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(C구간)」
극동아파트 민원 관련 구청장 면담 결과보고**

**「북한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사업(C구간)」
극동아파트 민원 관련 구청장 면담 결과보고**

□ **면담개요**

- 일 시 : 2015. 4. 28(화) 16:00 ~ 17:00
- 장 소 : 구청장실
- 참 석 자 : 11명
 - 극동아파트 : 황기호 등대표 회장 등 5명
 - 구 청 : 구청장, 푸른도시과장 외 2명, 장병진 설계용역사 소장
 - 구 의 원 : 홍길식 부의장

□ **면담내용(주민의견)**

- 산림내 구조물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함
- 북한산 자락길 노선이 극동아파트 101동과 근접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피해, 가림막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이 우려됨
-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으로 가림막이 길게 설치 되었을 때 그것이 강풍에 날려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건물에 위해를 줌
- 무장애 자락길은 장애인, 노약자 누구나 불편 없이 자연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으로 경사도 8 ~ 10%의 급경사 구간이 여러곳 있어, 자락길 설치 취지와 맞지 않음
- 아파트 바로 옆에 마치 사파리에서 동물을 조망하는 듯한 인공구조물이 설치 되었을 때 동물원 우리 속에 갇혀 사는 듯한 아파트 가격 하락 등 재산상 손실 우려

**서 대 문 구
【푸른도시과】**

- 이번 계획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, 우선적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이해당사자인 극동아파트를 대상으로 구조물이 지나는 위치를 표시한 후 의견을 청취해야 했으나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적인 절차로 공청회를 실시 했음

□ **답변내용(구청장)**

-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약자, 장애인, 어린이 등 모든 계층이 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서, 안전자락길 조성을 통해 선호도, 환경문제, 산림훼손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, 사생활 침해와 소음문제 및 가림막 설치에 따른 경관저해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

□ **향후대책**

- 제시한 의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 극동아파트 주민들께 상세히 설명코자 함.

붙임 면담사진 1부